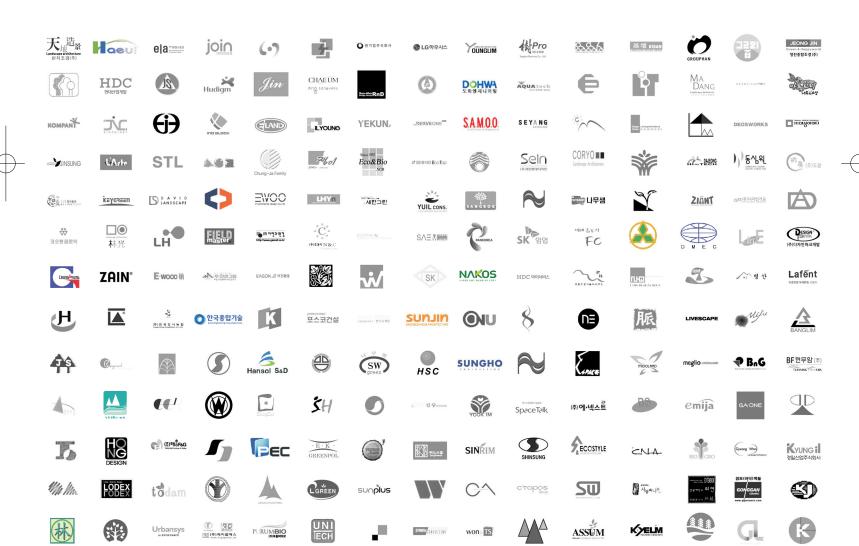


Summer 2017 No. 104





2017-07-27 오후 8:29:50

kr

写)

01 인사말
- 제상호(본회 수석부회장)
02 특집: 새정부의 조경정책과 우리의 바램
- 새정부의 조경정책변화/김명준(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 새정부에 바란다 I /안승홍(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새정부에 바란다॥/황용득(조경사업자협동조합 봄(VOM) 이사장)
- 새정부에 바란다Ⅲ/한명철(데오스웍스 부사장)
- 새정부에 바란다IV/조용우(도담조경(주) 대표이사)
<b>03 연재코너</b> ···········10
- 회원사탐방:(주)도화엔지니어링/문상규(조경·레저부 부서장)
- 우리들의 조경이야기/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 조경진흥법 바루기/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b>04 본회소식</b> ············18
- 더불어민주당 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사회 정책제안 전달식
- 2017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 2017 제6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2017 사목회
- '가뭄에 따른 조경식재하자 실태 및 대응방안' 회의 및 연구
<b>05 지회소식 ·······</b> 21
-부산시회
-울산시회
-대구경북시도회
<b>06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b> 26
-공지사항
-회원동정
-회비내역 및 협찬
<b>07 기업회원사</b> ·······32

## 洁景士

발행처 | (사)한국조경사회 발행인 | 최종필 편집인 | 제상호, 오화식 사무국 | 이주연, 이지영 편집 | 예항아트 발행일 | 2017. 7 (사)한국조경사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잠실한신코아오피스텔 401호(우.05510) Tel | 02-565-1712 Fax | 02-565-1713

표지사진 | 본회 기업회원사 소개

2017-07-27 오후 8:29:50

## 인사말

## 변화로 본 미래의 공원

공원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공원의 의미는 100년 동안 변해 왔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리의 공원은 일제권력의 상징이었고, 그 후 전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공원의 의미가 잠 시 사라지는가 싶더니 1960년대 공원은 정치적 권력 선전용으 로 이용되었다. 1980년대가 되어 여가의 의미가 확대 되면서 공원은 여가의 장소로써 자리매김한다. 그 후 생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공원은 생태성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 고, 현재에 와서 공원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함축해서 보여 주 듯 정치적인 도구로서, 생태와 여가의 장으로서 다층적인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은 (서울시만하더라도) 조 금만 걸으면 다가갈 수 있는 장소로 인식 되었다. 현재까지 서 울시에 있는 공원 현황은 공원률 27.24%, 시설률 87.82%로 계획공원은 2097개소에서 면적 164.91km<sup>2</sup>으로 나타난다. 서 울시만 보더라도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에서 공원이 점 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가 되어 도시에 살면서 녹지의 필요성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작용으로 생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과연 미 래에도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가진 공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흔히 '미래'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린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상충된 모습이다. 하나는 첨단기술이 발달한 도시. 초고층빌딩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과 맞닿는 건물들로 이루어진 마천루, 또 다른 하나는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온 파괴된 도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며 식물이 시들고 하늘은 회색이며 암울한 빛깔의 도시. 이 두 가지의 도시 모습 중 우리는 어떤 도시 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시에서 공원은 무슨역할을 갖게 될 것인가.

100년 후인 2117년 도시공원미래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먼저 100년 후의 도시 사회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기후의 변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기온은 매년 2°C씩 상승한다. 따라서 100년 후에 상당한 지구 온난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구온난화의 결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적정 규제에 실패할 경우, 2100년 해수면 상승폭은 최대 1 미터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둘째, 인구의 변화다. 유엔인구 기준국인 칼호브에 따르면 100년 후 지구 인구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73억명의 세계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인구이다. 한정된 지구라는 공간에서 많은 인구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일상화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세기의



제상호 / 본회 수석부회장 (주)천마이앤씨 대표

대결이라고 불릴 만큼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였다. 삼성전자의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 가지 주된 키워드로 생각해 봤을 때 미래도시공원의 역할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생태계의 기억저장소 역할을 한다. 지구온 난화에 따른 열대화로 생물다양성의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온 대기후, 냉대기후에서 사는 식물들은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공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질 것이다. 어린이들은 공원을 통해서 과거의 생태계를 공부할 수 있고, 100년 전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식물 품종개량 기술의 발달로 사막이나 북극같이 기후적 조건 때문에 식물이 서식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대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특수종이 개발되어 특수 종 중심이 된 공원이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실외가 아닌 실내 혹은 해양과 지상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다. 한정된 지구라는 공간에서 인간은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주거환경은 바로 바다 및 도시, 그리고 하늘 위에서 둥지를 튼다. 따라서 다양한 공간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VR기술의 발달로 공원은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다. 공원의 창조가는 더 이상 조경가가 아니다. 공원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한 공원이 만들어진다. 조경가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 때, 공원이나 설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취향에 맞는 조경가와 협업하여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놀이 활동을 주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조경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뿐이다. 또한 다양한 식물공부, 운동프로그램, 여가 생활 또한 이용자들에 맞게 가상으로 설계되어 개인에 맞는 공원을 만들게 될 것이다.

100년 후가 되었든 1000년 후가 되었든, 공원은 계속해서 인간이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떨어질 수 없고, 자연과 잠깐 멀어져 있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자연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그리움으로 식물을 키우고 자연을 인공적으로 조성시킬 것이며 자연을 떠올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찾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공원은 비록 인위적이지만 작은 인간에게 대자연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응

## 특집: **새정부의 조경정책과 우리의 바램**

## 새정부의 조경정책변화

#### 정부의 조경정책 방향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2017년 5월 10일 새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기존 정책들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경분야의 경우 그동안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여가를 중시 여기는 시민들의 선호에 따라 더욱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등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공원이나 녹지 등 녹색인프라의 확보는 소홀히여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경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할 이슈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도시재생과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문제라고 생각한다.

## 도시재생 사업에의 관심 필요

문재인 정부 도시정책의 핵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 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상가 및 주택 지역의 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 공동체 복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이 많 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도 도시재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재생사업 의 일환으로 자주 지원되는 부분이 공원 같은 녹색인프라이 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케이스가 폐산업시설이나 공장 등을 활용한 공원 등 여가녹지 공간의 확보이다. 금번 도시재생 뉴 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지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공원 등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인프라 공급이 사업에 많이 포함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분야로 구분하자면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지형이 조경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유형이라 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그간 도시계획이나 마 을만들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데 비해, 조경인들의 참여 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계획수립 등 내용적인 전문성은 물론이고, 주민들과의 대 화를 통해 선호를 파악하고,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을 조정하 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데, 조경분야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문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또 중요한 문제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이다. 앞으로 3년 뒤 인 2020년 7월이 되면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된 도시공원 은 그 결정이 실효된다. 이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 원에서도 많이 고심하는 문제로, 결국 문제는 공원조성 재원 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 서 미조성 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 토 중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의 행위제한 개선과 공원조성에서 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 한 임차공원 도입도 이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의 대상을 훼손지에서 공원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LH의 토 지은행을 활용한 공원부지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공원 은 보전녹지나 경관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도시계 획 제도 등을 통해 난개발이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문제는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묻고 자리를 같이 하여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천

조경분야의 가장 기본이 조경진흥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는 2017년 상반기 중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 계획에 따라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중에서 우선 역점을 둘 분야는 조경진흥센터의 지정 문제이다. 타분 야에 비해 조경분야의 현황 및 동향분석 자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경분야의 통계작성 및 동향분석에서 부터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 할 조경진흥센터 지정이 조경분야 발전의 첫 단추라고 생각 한다. 다음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적 인 운영을 위해 기본개념과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공원과 녹지의 조성 뿐 아니라 '관리'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 등의 참여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계획수립은 결국 실천으로 옮겨 져야 의미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2017-07-27 오후 8:29:51

### 새 정부에 바란다 Ⅰ

## 조경이 만드는 도시재생

우리 사회는 현재 미세먼지, 고령화, 저출산, 자살률 1위 등다양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산업화 시대 이후 급격한 양적 압축성장의 결과라 할 수있으며 또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 집중현상 등 수많은 도시문제에서 기인하였다.

현대 도시는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계획을 반성하고 스마트시티Smart City, 컴팩트시티Compact City, 뉴어버니즘New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Landscape Urbanism, 생태도시Ecological Urbanism 등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포용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인문도시 등 도시의 지향 이론 등이 제시되며 인간 생활과 자연의 공생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난무하고 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난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야심찬 '50조원 도시재생 뉴 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환경 개선, 공동체 형성,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 도시는 여건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개념, 추진 체계, 지역별 추진 전략 등의 수립과 인문·사회, 복지, 경제, 건축, 교통, 방재, 조경 등 다양한 접근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 도시환경 개선수단으로서의 도시재생

도시를 이루는 많은 부분은 민간 영역에 속한다. 공공에서 도 시환경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가로와 하 천, 공원녹지 등을 들 수 있다. 도시환경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아래를 제시한다.

① 가로경관과 보행도시Walkbale City: 근대의 도시계획은 자동차 중심으로 편제되어 도시에서 보행은 부차적으로 여겨졌다. 최근 도시의 간선이나 골목길 등 생활가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도시의 신경망 역할을 하며 국민 건강과 가로경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서울로 7017 등은 대표 사례이며 도로 및 철도 지하화를 통한 입체공원(경의선 숲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조성을 촉진하고 있다.

② 빈집 등 축소도시 대책: 신규 주택의 공급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빈집은 국토 관리의 효율성과 황폐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주택 1,637만호 중 빈집은 107만호(2015)로 6.5%에 이른다. 일본은 2033년이 되면 30%인 216만호가 빈집으로 전망되며 대책으로 도시 공원녹지 확보의 기



**안승홍** / 본회 상임이사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회로 삼고있다. 대부분의 공원녹지 사각지대는 빈집들이 많이 분포하는 구도심에서 발생한다. 이 기회를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와 관광숙박 등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공원녹지의 확보 대안으로 활용하자.

#### 도시 녹색 인프라의 확충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녹음과 여가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관리되며 전국적으로 21,000개가 조성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현안 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미집행공원의 실효: 1999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 획시설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에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비는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2009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의정부 직동공원과 수원 영흥공원 등이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수익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관련제도의 개선, 재정 확충을 위한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는 남은 시간은 단 3년이다.

②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수단으로서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녹색환경과 여가이용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라 현대 도시민의 여가행태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환경·생태적 고유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체육, 문화·예술,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체험·전시 등의 공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연계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등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공원과 접목한 청년창업 등 다양한 리모델링 수단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할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유기체이다.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인간 행위의 퇴적물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의 터전이다. 유기체의 삶이 생로병사로 이어지듯 우리의 도시도 같은 순환고리를 가지고 생성과 쇠락을 같이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법을 심사숙고하고 실천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충실한 중간자Bridging가 되기를 기대한다. 않

104호.indd 5

## 새 정부에 바란다 Ⅱ

## 녹색복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파고다공원은 이미 만원이다-



황용득 / 본회 명예회장 조경사업자 협동조합 봄(vom)이사장 도이조겨마다 대표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과 베이비붐세대의 일시은퇴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이후인 1955년부터 63년사이에 태어난 이들로서 약900만명에 이른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20반에 2부수업으로 전교생이 1만명이 넘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했다. 이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혁신적인 의료수준의 발달로 이들의 평균수명은 100세를 전후할 것이라하니 약 40여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 지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도시의 유랑자들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은퇴한 그들이 건강을 돌보고 휴식하고 담소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즉, 보편적 녹색 복지 실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파고다공원만 해도 노인들의 전유공간으로 전략한지 오래이나 그 곳은 노인들을 위해 충분히 휴식하고 즐길수 있는 힐링의 공간은 아니기에 불편한 그들의 동거는 공원의 정체성을 상실케하며 이용객에게는 혼동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파고다공원의 성격과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파고다공원은 만원이다.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주거상황은 은퇴한 그들에게 다양한 일과를 보낼 충분한 공간이 아니다. 그들에게 아파트는 먹고 자는 곳이기에 그들을 아침먹고 회사에 출근하듯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갈곳이 어디이며 얼마나 되겠는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등산을 시작하거나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주변의 산책로를 이용할 것이며 그들의 탈출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길 좋은 공원이 유일할 것이다.

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나 국민의 삶의 수준속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한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의 의지로 만들어진 분야이다. 그 시절에 많은 시골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비포장도로가 지천이었던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시기에 청와대 조경비서관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종합조경공사라는 공기업을 운영케 한 점은 파격중에 파격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절대권력자의 몰락후 조경도 함께 몰락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는 아직까지 국가직 공무원 한명이 없으며, 상징적으로나마 조경진흥법이라는 막연한 법 하나가 만들어진 실정이다. 만약 그 당시 조경관련법이 제정되었다면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한 녹색복지가 크게 성장해 왔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늘 남아있다.

#### 새정부에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녹색복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미세먼지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900만명의 베이붐세대가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시대에서 그들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며 미래를 생각할 녹색공간에 대한 준비는 이미 많이 늦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에 일임한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을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선도해가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차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7-07-27 오후 8:29:52

## 새 정부에 바란다 Ⅲ

## "새 정부의 조경정책과 우리의 바램... 새 정부에 바란다"



**한명철** / 본회 상임이사 데오스웍스 부사장

國以民爲本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며, 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광화문 광장에 계신 세종대왕께서 그 옛날 하셨던 말씀이다. 먹는 것 즉,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정부도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과제로 삼았다고 본다.

우리네 조경산업은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에 따른 각종 산업인프라 구축, 수많은 신도시건설과 함께 맞물려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계획. 설계. 시공. 자재 등 조경 전분야가 먹구름속에 가리워져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건 앞으로의 길도 밝지 않으며, 불확실하다는데 있다. 다행히 새정부의 중점과제중 4차산업혁명을 통한 변화와 경제혁신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적극적인 개발정책등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성공으로 경기부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경산업에도 밝은 햇빛이 보일 것이다.

조경공사업이 5개 일반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된 관련법 하나 없이 45년여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다.(건설관련 타공종에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취급...) 다행히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제정, 2016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조금씩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지원단체설립 등)의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건설산업계의 건강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경산업계에 기운을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경산업계에는 적정가격의 유지 및 보호가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조경계의 특징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특화된 사업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발빠른 적응과 대응이 필요하다. 다품종 소량생산은 그동안 조경계의 단점이라 여겼던 부분이며 이런 불합리한 환경에 단련되어 왔으니 반대로 최근 트렌드를 선점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전화위복, 장점이 됐다고 본다. 하지만 부적절한 단가책정 출혈경쟁으로 그리 건강하지 않은 담금질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위상과 가격이 매김되어 있으므로 단계별 관계정립과 적정가격 형성이 관건이라 하겠다.

설계 → 도급 → 하도급의 단계별 적정단가 책정과 정착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원/하도급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갑/을간의 협업과 상생의 기본이 된다 하겠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 (2016년 8월 4일).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디자인참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전무하다보니 설계 및 디자인

104호.indd 7 2017-07-27 오후 8:29:52

참여자가 제작.시공해야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디자인+소재+제작+시공이 가능함에도 일부 무지한 시공현장에서 가격우선주의로 저가의 복사품을 설치하고 있어 출처 불명한 제품으로 전체적인 설계의도 왜곡, 공사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법적인문제로 확대될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2015년 5월21일 한국조경신문 - 디자인침해 배상 및 사과문 게제/2014년11월 판결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동년 8월 4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법적제제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었음 한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놀이터내 잦은 안전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분쟁발생, 민원해소 등을 위해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자 도입한 법규(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2008년1월27).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기준을 참고로 놀이시설 안전기준과 놀이공간내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안전한 놀이터라는 미명하에 전국에 폐쇄된 기존 놀이터가 무수히 많으며, 담당자의 개인능력차로 인하여 기준 적용의 애매모호함이 1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법시행 전에는 다양한 놀이공간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모험/창의 라는 이름의 놀이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법시행 전후 놀이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머리로 아는 것 보다는 몸으로 익히는게 오래 남는다. 안전한 놀이의 대상인 어린이들이 스스로 놀면서 익히는 위험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이유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기적의 놀이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용자가 있다. 법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놀이터인지 또한 궁금하다. 예전부터 법 기준을 시행한 독일 등 유럽에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없는건 아니다. 법적 분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시설이 큰 문제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십년간 문제에 대한 협의와 토론과 협력과 인 식전환과 제도개선등을 통한 사회적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길러줄수 있는 놀이공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조경산업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본다.

건강한 삶, 힐링, 치유,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등 이러한 이슈에 빠지지 않는 요소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하늘, 나무와 공원, 숲 이라는점은 다들 알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관여하는 분야가 조경임은 또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중심에 조경산업계가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싶다.

모쪼록, 촛불의 염원으로 시작된 새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조경산업계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

## 새 정부에 바란다Ⅳ

## 새 정부의 조경정책과 우리의 바램

(조경인의 주권! 조경인에게 있습니다)



조용우 / 본회 시공위원장 도담조경(주) 대표이사

대한민국 근현대조경의 서막은, 1970년대 초반, 전국의 황무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당시 정부의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부터, 조경업의 역할은 시작되었습니다. 척박했던 국토, 계획적이지 못한 전국의 도로, 그리고 황폐화 되어 있던 산지와, 도시의 녹지공간을,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형으로 국토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경업이 필수 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조경업은 국가정책과 과제로 편입되며, 당시 조경학과, 조경학회, 한국종합조경공사, 조경사회 등이 신설되어, 단시간 내에 국내 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근대를 지나 현재 까지도 국토개발과 자연환경보존의 중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전국의 38개 대학교에서 조경학과를 운영 중이며, 업계에서는 조경공사업 보유업체 1,477개, 조경식재공사업 4,373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2,431개를 통하여 약 20만명의 조경인이 생계 수단으로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업계에 종사하는 조경인과 그간 아름다운 국토개발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해 온 조경 산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첫 번째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 토목공사업 등과 더불어 당당히 독립 된 건설업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경업을 건축공사업의 부속 공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공공기관(정부 기관, LH, SH)에서는 최근 조경공사를 건축, 토목에 묶어 통합으로 발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순수 조경업체는 외면하고 순수 조경업체에게는 입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미래는 포기하고, 자본 력으로 무장한 대기업만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중소기업보호, 동반성장, 취업률 확대정책)에도 위배 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조경! 그 자체를 보호하고 독립된 건설업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 조경인의 염원! 국토교통부내에 '조경과'를 신설하여 주십시요. 이제껏 조경분야는 정부의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아름다운 국토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조경 산업과 조경인을 지휘 할 조경전문 부서가 정부 기관내에 전무 한 실정입니다. 조경산업은 이미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추후 '도시재생사업, 환경보존사업, 미집행도시공원, 신도시조경'등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 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 할 전문 부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식이라 사료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한, 조경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조경인의 기술자적 인권을 보호하며, 그 인권을 지켜 줄 국가 행정기관,부서를 꼭 하나만이라도 신설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내에 조경산업을 이끌어 줄 '조경과'신설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도 조경현장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땀 흘리는 조경산업 기술자들, 그리고 미래의 조경산업에 이바지 하고자,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미래의 조경 산업 일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 주시리라 간절히 바라옵고 기대합니다. 조경업의 주권은 조경인에게 있습니다!

104호.indd 9 2017-07-27 오후 8:29·5

#### 두·번·째

## 회원사 탐방 | (주)도화엔지니어링 조경레저부



**문상규** / ㈜도화엔지니어링 조경 레저부 부서장

## 도화엔지니어링 회사소개

(㈜도화엔지니어링(회장 오세항)은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 조경, 철도, 도로, 교통, 교량, 터널, 항만, 환경, 플랜트 등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시험·감리·시공·구매·시운전·평가·자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이다.

#### '최초에서 최고로'

㈜도화엔지니어링은 1957년 8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사업영역 전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국내뿐 아니라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페루, 네팔 등 국내외 8,000건 이상의 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는 도화엔지니어링은 2015년 선포한



도화타워(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화 뉴비전 2020'에 따라 아래와 같은 미션, 핵심가치, 비전 등을 상기하며 약 2,000명의 전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미션 - 人'

자연과 사람을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를 창조합니다.

#### '핵심가치 - 和'

사람이 먼저인 인본

(사람이하는일이고 사람을 위해하는 일이다)

마음을 모으는 화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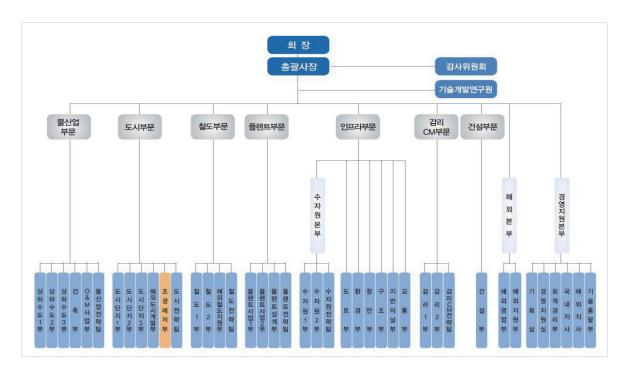
(상호신뢰와 배려로 마<mark>음을</mark> 모은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창의

(창의적인 사고에서 생명력있는 기술이 나온다)

#### '비전 - 創'

도화가 디자인한 세계, 인류가 꿈꾸는 세상



### 도화 조경레저부 부서이야기

조경레저부의 하루와 끝은 핵심가치 제창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차츰 문구를 외치면서 의미가 되 새겨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 '사람이 먼저인 인본', '마음을 모으는 화합',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창의' "

도화 도시부문의 도시 단지, 해외도시, 조경레저부는 구호를 외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사람이 먼저인 인본'

도화엔지니어링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목표하고 있다. 사람사는 공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다 더 사람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야근 없는 회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봉제를 도입했다. 물론 조경업무 특성상 야근과 주말출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자율도가 높아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을 위한 복지인프라도 잘 구축되어있다. 자녀학 자금지원, 기념일축하, 가족방문의날, 문화행사지원, 휴양시설지원, 무료외국어교육 등 임직원의 삶의 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 및 교육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도화 환경정화봉사활동(2017. 3)

#### '마음을 모으는 화합'

조경레저부는 부서 내 소통을 위해 매월 비어데이를 진행한다. 단순히 유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직급간 대화를 통하여부서 내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다. 업무시말하기 어려운 사항도 격의없는 분위기로 잔을 부딛히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연간 행사로 부서 워크샵을 진행한다. 일반적인 워크샵 프로 그램으로서 최근 조경 트렌드에 대한 초청강연과 부서직원들 의 퍼실리테이션 운영으로 이루어 진다. 조경레저부의 퍼실리테이션은 구성원별 자체적인 상향식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부서의 미래 발전방향과 현재상황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액션플랜 계획을 세운다. 이에따라 부서 구성원들이 각자 도출해낸 결과에 따라 애착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다.



도화 조경레저부 워크샵 국립백두대간 수목원(2016. 9)

####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창의'

조경레저부의 신입사원들은 3개월간 교차교육을 진행한다. 단순히 조경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타 부서와 공동으로 진 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게된다. 이로서 실무 진행시 업무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치, 아이디 어를 창출하게 된다.

조경레저부 직원들의 외부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세미나, 포럼, 박람회 등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행사에는 직원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러한 열린 생각을 가진 부서사람들과 분위기로 앞으로 나아갈 융합적 세상으로의 준비와 '도화가 디자인한 세계,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회사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화 도시 단지 조경 교차교육(2017. 2)

104호.indd 11 2017-07-27 오후 8:29 56

### 도화 조경레저부 주요연혁 및 수행프로젝트

도화엔지니어링 조경 레저부는 1990년 문상규 사원(당시)의 입사와 함께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소규모 사업위주의 업무에서 시작된 조경레저부는 인천 부평공원 현상설계(1998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업역이 확장되었다.



인천 부평공원 현상설계(1998)

2000년대 초에 들어서 강원도 태백의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전북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수주하면서 테마공원 업무에 대한 부각을 나타내었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부서의 규모확장 및 부서명칭변경(조경부→조경레저부)과 더불어 골프장, 레저시설위주의 사업으로태백 서학 레저단지 조성사업, 강원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공사(턴키), 친환경대중골프장 제안서(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참여, 수주하여 조경부문의 업역을 파격적으로 넓히게 된다.



정선 친환경대중골프장 제안서(2007)

또한 춘천 G5 국제현상공모 및 UN평화공원 조성사업, 광주 전남혁신도시 조경현상공모 등 국내 굵직굵직한 조경현상공 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부서 내 질적향상을 위한 조경 및 공간디자인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춘천 G5 국제현상설계(2006)

2010년대 부터는 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등 산림생태분 야에 부각을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제 안서 당선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무주산림생태 문화체험단 지,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최근 산림분 야의 대두와 더불어 산림생태분야로서의 전문업체로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현상설계(2012),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현상설계(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현상설계공모에 지속적으로 공동참여 해온결과 최근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한 영천경마장 현상설계 아이디어공모(2015)(2등) 및 국제현상공모(2016)(1등)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않



영천경마장 아이디어 공모(2015)



영천경마장 국제현상공모(2016)

회사홈페이지 http://www.dohwa.co.kr

## 우리들의 조경이야기



**김영민**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 2016년 12월 7일

#### 넋두리

계기는 술자리였던 것 같다. 여름조경디자인캠프 뒤풀이 자리에서 어쩌다보니 선생들끼리 앉게 되었다. 선생이라고는 하지만 30대의 소장, 팀장, 교수 몇 명이었다. 늘 그렇듯이 조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새 소위 조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실컷 조경계를 망친 제도를, 누군가를, 어쩌면 우리 자신을 욕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담았던 불만을 털어놨다는 후련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안고 헤어진다.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우연한 기회에 다시 술자리를 갖게 되고 똑같이 누군가를 향한 욕을 하고 똑같은 위안을 얻고 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넋두리나 하지 말고 그 에너지로 뭔가 우리끼리 생산적 인 걸 해봅시다."

이번에는 꼭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서로 단단히 다 짐을 하고 헤어졌다. 한참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던 어느 날 조경설계 일을 하고 있는 30대 언저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는 꽤 오래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이미 끝나기로 예정 된 시간은 넘어가고 있었지만 모두들 여전히 할 말이 많았다. 나는 쌓아놓은 [환경과 조경]을 다시 집어 들었다. 몇 해 전 창간 30주년 호에서 조경을 진단하고 비전을 찾는 특집이 나 왔다. 10주년 때도, 20주년 때도 그런 특집을 했다. 모두들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서로 목소릴 높여 하는 자신의 이 야기는 사실은 몇 해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미 누군가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였다. 그나마 우리는 기성 세대 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비판했지만 결국 동일한 고민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기 성 세대는 비록 유토피아를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시 대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 았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과거를 비판할 권리가 주

어진다면 그 근거는 과거의 성공과 과오에 있어 아무런 역할 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었다. 논의의 끝에서 누군가 물었 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건축계의 불평등한 시선이 있고,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설계사 결합한 부조리한 독점적 구조가 있고, 대중들의 몰이해가 문제인 것이 다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을 행정 주체나, 건축계나, 대형 회사나, 대중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죠?"

#### 문제가 문제인 이유

일단 지난 40년간 우리가 같은 진단을 내리고 같은 주장을 외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문제의 본질은 깊이 숨겨져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주장들이 이루어져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보자.

제대로 된 조경 관련 부서도 없으며, 직제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런 조직과 직제가 없어도 상관 없었기 때문이다. 건축을 주제로 한 예능이 인기를 얻고 포털사이트들이 건축 관련 캐스트를 기획하는데 반해 조경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도 조경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은 D-Museum이나 리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동안 조경은 조경박람회에서 잔디블럭이나 광고했던이유는 아무도 조경 전시를 그러한 일류 미술관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목도, 건축도, 클라이언트도 조경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그래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경뿐이다. 이러한문제는 조경을 제외하면 아무에게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아니다.

104호.indd 13 2017-07-27 오후 8:29 58

#### 개구리의 성벽

계(界)는 경계의 안을 뜻한다. 그래서 조경계는 조경의 안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경계가 만든 경계가 우리를 지켜 주는 성벽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계를 침범하면 몰아내려고 악다구니를 했고 성벽 바깥으로 진출하여 안의 경계를 넓히려고 했다. 그런데 과연 그 계는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였을까? 혹시 성벽은 우물의 테두리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우물 안에 안주했던 개구리는 아니었을까? 개구리들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들끼리 우물 밖의 달을보고 40년간 꽥꽥거려왔다. 이끼를 먹으며 가끔 밖에서 떨어지는 벌레를 먹기 위해 서로 싸우며, 우물에 모여산지 10년씩 지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꽥꽥거렸다. 가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열병 같은 감정이 엄습하지만 그나마 우물에서는 이끼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행동을 망설이게 한다.한 지혜로운 개구리가 충고한다.

"그나마 이 우물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물론 이 안에 있으면 먹이는 풍족하지 않겠지. 하지만 밖에 나가자마자 너희는 뱀들에게 먹히거나, 태양 아래에서 말라 죽거나, 배고픔으로 죽게 될 거야."

열심히 우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개구리의 다리는 이미다 녹아서 뼈가 드러나 있다. 지난 40년간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충고는 진실이 되고, 우물은 세계가 된다. 그런데 어떤 개구리는 의문이 갖는다. 나는 언제부터 이 우물에서 살게 된 것일까? 나는 이런 이끼를 먹으며 가끔 떨어지는 벌레의 뒷다리를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과연 나는 개구리인가?

#### 세계의 파괴

조경이라는 테두리가 부조리하고 나를 얽매이기만 한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성벽을, 혹은 우물의 경계를 부수어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조경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이들은 거꾸 로 조경이라는 세계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 정부에 조경직이라는 메시아가 도래하여 풍족한 만나를 무한히 먹여 주리라는 허황된 희망. 예로부터 이어진 조경의 고유한 가치 가 존재하며, 그 가치가 불변하는 선이라는 허무한 믿음. 그 들은 거짓된 희망과 믿음 안에 갇혀있다. 만일 조경가가 엔지 니어링 법이 규정하고 조경진흥법이 있어야만 생존가능하며, 조경직이 없다면 별다른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 먼 나라 에서 옛날에 만든 가치를 맹신해야하는 존재라면, 도대체 그 런 하찮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하는가? 개구리의 메 시아는 도래하지 않는다. 아무도 밖에서 구원해주지 않는다. 사실 메시아는 이미 이 안에 있다. 파괴하는 자는 새로운 발 톱과 송곳니와 날개를 얻는다. 그리고 한 때 개구리였던 짐승 은 개구리를 포식하는 자가 된다. 구원은 애초부터 없다. 새

로운 짐승에게 개구리의 세계는 쓰러져야할 거대한 괴수의 껍질일 뿐이다.

만일 누군가가 조경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조경이라는 세계 때문이 아니라 조경이라는 무기 때문이다. 세계는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개구리들을 위한 빈곤한 생존의 장치이다. 사냥을 하는 자는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경이라는 발톱이 아니라면 잡을 수 없는 사냥감, 혹은 조경이라는 송곳니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먹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경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어 사냥을 시작한다면 짐승은 사냥개가된다. 스스로 잡은 먹이를 주인에게 바치고 생존을 위한 삶만을 사는 노예의 짐승이 된다. 발톱이 있어도 세울 줄 모르며, 송곳니가 있어도 드러낼 줄 모르며,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짐승은 혼자 울어야하는 개구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 12월 7일 이후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꽥 꽥 거리로 했다. 아직은 공허하지만, 완전히 우물 밖으로 뛰 쳐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물의 경계에 서서 바깥을 보고 바깥을 향해 꽥꽥거리기로 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은 모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늘 이번까지만 모이는 것이 아 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7월이 된 지금. 그렇게 매달 8번 을 모였다. 그동안 누군가는 아무 성과도 없이 꽥꽥거릴 뿐 인 이 자리를 떠났고, 누군가는 방관 중이고, 또 누군가는 새 롭게 들어왔다. 아직 아무도 발톱이 솟아나온 것 같지도 않고 날개가 돋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떠난 자들은 혼 자 짐승이 되는 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존의 우 물 안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파 다른 방향의 달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 번은 야근과, 마감과, 육 아와, 다른 삶의 무게에 압도되지 않고 자위행위에 불과한 넋 두리가 아닌 노력을 한다는 사실은, 허무함의 공유로부터 오 는 위로가 아닌, 타인을 향한 불만과 요구가 아닌,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어떠한 지향을 꾸준히 향하고 있 다는 사실은. 우리가 찾은 최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작은 믿음에 대한 근거이다. 🥞

104호.indd 14 2017-07-27 오후 8:29 59

## 조경진흥법 바루기

- 연재순서 -
- 1.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 2.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 3.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 4. 조경공사 품질관리, 기대효과



**진승범** / 본회 자문위원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2. 조경분야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조성에 관한 사항
  -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 기관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ㅇ 개요

- 조경은 생태환경生態環境의 보전을 근간으로 정주환경定住環境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법을 제시하는 학문 및 기술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임
- 그러나, 여러 부처가 조경사업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하여 조경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실 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학술, 기술, 산업 등 조경분야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임

104호.indd 15 2017-07-27 오후 8:29 59

#### ㅇ 해설

- 조경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
- 조경업진흥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강행규정임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①전년도 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②해당 연도 조경진흥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해당 연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조경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ㅇ 기대효과

-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조경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조경분야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매년 변화하는 산업전반의 여건 파악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 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ㅇ 개요

• 조경분야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조경산업분야의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조경전문 교육기 관 지정 및 교육기반 마련

#### ㅇ 해설

- 조경산업진흥을 위해 조경전문 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기 배출된 조경기술자 등 전문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국 공립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단체를 조경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조경산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제2항제4호에 의거 시행령 제5조에서 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④ 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⑤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 (사)한국조경학회나 (사)한국조경사회 등도 지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조경전 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함

#### ㅇ 기대효과

- 건설기술자 계속교육 과정 이수시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 신공법 등을 학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의 자질 향상에 기여
- 지정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

#### ● 제7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 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 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개요

- 대부분 영세한 조경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경분야 산업여건 개선에 기여
- 조경진흥시설은 조경분야 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지정 후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해제 근거 마련

### ㅇ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진흥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자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조경진흥시설로 지정 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 짐을 명시
-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①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②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④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등 세부 지정 요건을 명시
- 또한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①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③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

#### ㅇ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 입주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벤처시설집적시설과 같은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경설계산업의 여건 향상이 기대됨.

104호.indd 17 2017-07-27 오후 8:30;00

#### 본회소식 • 2017 ·

## 더불어민주당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정책제안 전달식

- 일시: 2017년 5월 2일 (화), 13:30~14:10
- 장소: 국회본관 201호
- 참석: 본회 6명, (사)한국조경학회 8명, ㈜한국조경신문 1명
- 내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경정책전달과 자문위원 임명장수여식 진행





## 2017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 •일시: 2017년 5월 18일(목)~21일(일), 10:00~18:00
- 장소: 코엑스 B Hall
- 주최: (사)한국조경사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리드엑스포

행사명	행사개요		
조경 · 정원설계 작품전시회	• 일시: 2017년 5월 18일(목)~21일(일) • 장소: 코엑스 1층 B Hall (내부 세미나실) • 주관: 본회 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 내용: 조경 · 정원작품 전시 및 홍보		
조경과 loT의 만남 세미나	<ul> <li>일시: 5월 18일(목), 13:00~18:00</li> <li>장소: 코엑스 3층 E Hall</li> <li>주관: 본회 자재개발위원회, 식물생태위원회</li> <li>협찬: ㈜디자인파크개발, 미주강화㈜, ㈜대지개발, 정광인쇄㈜, ㈜판코리아, ㈜유니베라</li> <li>참석: 250여명</li> <li>내용: 조경산업의 미래를 위한 IoT와의 융합 모색</li> </ul>		
공공기관 세미나 고객만족을 위한 하자 ZERO방안	• 일시: 5월 19일(금), 13:30~18:00 • 장소: 코엑스 3층 E Hall • 주관: 공공기관조경협의회, 본회 기획홍보위원회 • 참석: 200여명 • 내용: 공공기관 상호간 기술공유 및 교류확대		
취업 세미나 일자리 토크쇼: 궁금한가요, 그대	• 일시: 5월 20일(토), 15:30∼17:30 • 장소: 코엑스 1층 B Hall (내부 세미나실) • 주관: 본회 전시포럼위원회 • 참석: 100여명 • 내용: 학교와 업계의 연계를 통한 열린 취업정보 토크의 장		

2017-07-27 오후 8:30:04

#### 본회소식 • 2017 •













## 2017 제6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일시: 2017년 5월 31일(수) 11:30~21:00
- 장소: 이천 마이다스 C.C
- 주관: 본회 여성위원회
- 참석: 7개팀 / 30명
- 협찬: ㈜그린이엔지(황화정), 다정하이테크(남궁문학), 원앤티에스(김태수), ㈜더준디자인(김상준)
- 물품협찬: 신천희(장수산업㈜), 노영일(㈜예건), 조백일(㈜공간세라믹), 제상우(㈜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박서영(키그린㈜), 정미화(한림로덱스㈜), ㈜디자인파크개발, 김부식(㈜한국조경신문), 이소향(데오스웍스), 유희선(인바이오), 유선희(㈜토문엔지니어링)
- 내용: 1) 여성조경인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연 1회 '여성조경인 골프대회'를 진행 2) 박진숙 소장(㈜조경설계비욘드) 우승



104호.indd 19 2017-07-27 오후 8:30 19

#### 본회소식 • 2017 ·

## 2017 사목회

- 일시: 매월 네번째 목요일 13:00~
- 장소: 뉴서울C.C
- 주관: 본회 사목회
- 내용: 본회에서는 조경인들의 친목과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골프모임을 주최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조경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목회 총무 (홍석진 체육분과위원장, 010-4922-37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23회 사목회	224회 사목회	225회 사목회
일시	2017년 4월 25일(목), 13:00~	2017년 5월 25일(목), 13:00~	2017년 6월 22일(목), 13:00~
참석	4팀 16명	4팀 16명	4팀 16명

## '가뭄에 따른 조경식재하자 실태 및 대응방안' 회의 및 연구

- 1차회의: 2017년 6월 27일(화) / 본회사무국
- 2차회의: 2017년 7월 4일(화) / 성지스타위드 회의실
- 내용: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식재연구원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향후 관수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의 연구과제로 T/F팀 구성 및 기술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DB구축키로 함



• 지회소신 • 2017 •

## 부산시회

## 2017 조경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 내용: 2017년도 조경가이드북 500부를 제작하여 회원 및 회원사와 발주처 배부함
- 후원: 송유경회장, 박태근감사, 윤종면수석부회장

## 회원단합을 위한 봄맞이 산행행사

- 일시: 2017년 4월 22일(토)10:00~14:00
- 장소: 부산 금정산성
- 참석: 송유경회장 외 회원 10명



# 

### 2017 희망어린이 놀이터 사업

• 내용: (사)부산조경협회에서는 2017년도 희망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부산시 구·군청과 부산아 동복지협회에 대상지 추천공문을 발송하였음. (발송일 4.30) (대상지 추천마감은 7월말)

### 2017 부산정원박람회 추진 사업

- 개최일자: 2017년 10월18일(수)~20(금)
- 장소: 부산시민공원(남문)
- 진행상황: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야외 정원박람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각종 박람 회 행사기획을 진행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송유경. 윤종면. 윤은주. 홍종현. 김재화. 김동필. 김해몽. 이성근. 이명옥. 이서하

### 골프동호회 부산,울산.대구 친선 라운딩 참여

- 일자: 2017년 6월 30일(금)
- 장소: 베이사이드C.C.
- 참석: 부산팀4명

2017-07-27 오후 8:30 23

#### 지회소식 • 2017 •

## 울산시회

## 회장단 회의

- 일시: 2017년 4월 5일 12:00~ 2017년 6월 7일 08:00~ / 2017년 6월 25일 12:00~
- 장소: 사무국



## 2017년 정원스토리 페어 행사진행 위원 업무분담 회의

- 추진분과: 정원문화분과 (김영중 위원장)
- 일시: 2017년 4월 6일 12:00~
- 장소: 울산 신정동

### 울산 행복학교 MOU 체결

- 추진분과: 시공분과 (윤기덕 위원장)
- 일시: 2017년 4월 11일 10:30~
- 장소: 울산 행복학교



## 2017년 울산시 조경공사설계지침서 제작 및 배포

- 추진분과: 설계기술분과 (정명렬 위원장)
- 일시: 2017년 4월 18일~

### 울산 행복학교 시공관리

- 추진분과: 시공분과 (윤기덕 위원장)
- 일시: 2017년 4월 14일
- 참가대상: 시공분과 이사

## 2017 정원스토리 페어 개최

- 추진분과: 정원문화분과 (김영중 위원장)
- 일시: 2017년 5월 11일~5월 21일
- 장소: 울산 태화강대공원 대나무생태원
- 행사내용
- 회원사 출품작: 22개작품 / 외부초청작:5개작품 / 시 민,학생 출품작: 11개작품
- 문주: 2개소 / 포토존: 3개소 / 물의정원 / 울산정원 /한 국정원디자인협회사진전 / 정원소재 및 정원수목전시
- 계절초화 나눠주기 /대나무 화분 만들기 / 정원설계 상담코너 / 정원해설가 이야기





##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2기)

- 추진분과: 교육분과 (박상건 위원장)
- 사업명: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2기)
- 사업기간: 2017년 6월~7월 말
- 내용: 울산광역시 환경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회에서 시민정원사 양성 및 배출하여 울산광역시 내 도시녹화지역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모니터링 활 동을 실시함



#### • 지회소신 • 2017 •

## 육군 제7765부대 MOU 체결식

- 추진분과: 사회공헌분과 (장보근 위원장)
- 일시: 2017년 5월 11일 11:00~11:30



## 울산 행복학교 업무협약지원

- 추진분과: 시공분과 (윤기덕 위원장)
- 일시: 2017년 5월 27일
- 내용: 예초작업, 의자도색작업, 화분꽃교체작업, 시비약 제살포 등 시행
- 참석인원: 15명



## 환경의 날 행사

- 일시: 2017년 6월 2일 (금) 14:00~
- 장소: 태화강대공원
- 내용: 정명렬 설계기술분과위원장 시장상 수상



## 육군 제 7765부대 기부정원 작품설치

- 추진분과: 사회공헌분과 (장보근 위원장)
- 일시: 2017년 6월 5일
- 장소: 육군 제 7765부대



## 장병 심성순화를 위한 "정원가꾸기운동"

- 일시: 2017년 6월 15일
- 장소: 육군 제7765부대
- 내용: 육군 제7765부대와 정원기부 공식기념식을 가짐



## 울산녹색포럼 전문가세미나

- 일시: 2017년 6월 28일 14:00~16:00
- 장소: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 주제: 울산시 상징화(장미)를 이용한 도시녹화방안 및 산업화방안
- 내용: 울산녹색포럼 및 울산광역시가 주최한 세미나로 한국조경사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박태영 회장이 지정토론 전문가 단체 대표로 참가함



#### • 지회소신 • 2017 ·

## 대구경북시도회

## 제1회 산학관협의회 개최

- 일시: 2017년 3월 29일(수)
- 장소: 대구 들안길 남도명가
- 참석: 대학 교수 6명, 본청 공무원 6명, 조경사회임원 7명
- 내용: 녹지계열 공무원 채용시 조경직류 포함채용, 조 경공사 발주시 지급자재 개선 필요 등



## 대구경북시도회 제2기 임원진 워크샵

- 일시: 2017년 4월 21일(금)~4월 22일(토)
- 장소: 팔공산 금화휴양림
- 참석: 70여명.(행사주관: 교육분과, 행사지원: 청년분과)

#### • 내용: 토론회

- 1)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미반영건,
- 2)지급자재의 과도한 설계반영으로 인한 조경시공업 계의 피해

## 제2회 공원녹지포럼 사전회의 개최

- 일시: 2017년 5월 4일(목)
- 장소: 들안길 소풍가
- 참석: 대학 교수 2명, 본청 공무원 1명, 조경사회임원 3명

## 5월 회장단회의

- 일시: 2017년 5월 24일(수)
- 장소: 한정식 식장
- 내용: 1) 지자체 지급자재 과다 반영건에 대한 대책 협의 2) 조경공사 및 설계용역 부적정성에 대한 대책 협의

## 대구 졸업작품전 축하화환 전달

- 일시: 2017년 6월 2일(금)
- 내용: 대구대, 대구한의대 축하화환 전달



#### • 지회소신 • 2017 •

## 2/4분기 산학관협의회 개최

-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 장소: 대구 들안길 용지봉
- 참석: 대학교수3명, 본청 공무원 2명, 조경사회임원 7명
- 내용:
- 1) 제2회 공원녹지포럼 개최 계획수립
- 2) 영남지역 조경학과 연합 졸업작품전
- 3) 설계지침서 발간추진
- 4) 지급자재 과다반영 지양 등 회원사 민원사항



## 제2회 대구경북시도회 조경인 골프대회

-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12:28~13:10
- 장소: 왜관 세븐밸리CC
- 참석: 총 14팀 참석예정(본회 회원,대학,공공기관, 타시회 등)

### 제2회 공원녹지포험 개최

-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14:00~17:00
- 장소: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190석)
- 주제: 신천개발 기본계획 토론회
- 참석: 관련분야 학자, 설계시공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250여명
- 내용:
- \*발표예정자 ① 기본계획: 용역사
  - ② 식생: 김용식교수
  - ③ 경관: 정태열교수
  - ④ 관리: 이정웅이사
  - ⑤ 사례: 이제화수석부회장
- \*토론자(안) 좌장: 조경학회 김수봉지회장, 대구시, (사)한국조경사회, 언론사, 시의회, 환경단체 등

2017-07-27 오후 8:30 28

####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 2017 •

## 회원동정

##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 ○개인회원(2017년3월~ 2017년6월)

김규범(㈜플레이잼)

김성진(에스엘디자인)

김진성(㈜유성이앤씨)

손 결(키그린㈜)

심원양(가야스톤헨지)

이안숙(홍익대학교)

제상우(㈜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최민정(㈜한길조경)

최병희(태광데크㈜)

#### ○기업회원(2017년3월 ~ 2017년6월)

#### ㈜네이코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운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20

유타워 1805호

전화: 031-627-2800 팩스: 031-629-5146

e-mail: nakos0097@hanmail.net

### ㈜다비드조경

대표이사: 이정민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5-7,

5층 507호(진안동,뱅뱅프라자)

전화: 031-554-4378 팩스: 031-554-4379

e-mail: dlc503@naver.com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세항, 노진명, 박승우, 곽준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7층 (대치동, 도화타워)

전화: 02-6323-3921 팩스: 02-568-3774

e-mail: kim7221@dohwa.co.kr

#### ㈜동백엘앤씨

대표이사: 조석근

주소: 경기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52, 403호 전화: 031-781-5272 팩스: 031-781-5274

e-mail: up9000@hanmail.net

### ㈜영원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진선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22, 7층 (서초동, JS빌딩)

전화: 02-588-6781 팩스: 02-586-7525

e-mail: yw6781@hanmail.net

#### ㈜유니텍홈즈

대표이사: 남상돈

주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로 465-20

트윈세이버건물2층

전화: 031-674-7123 팩스: 031-674-7124

e-mail: uh7123@hanmail.net

#### 사무실 이전 안내

### 1. 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 [본회 기업회원사]

- 대표이사: 신현돈 [본회 감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테라타워2 A동 719호
- 전화: 02-576-5171 팩스: 02-3463-7009

### 2. 김종해조경설계주식회사 [본회 기업회원사]

- 대표이사: 김종해 [본회 자문위원]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116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 전화: 070-7688-0321~4 팩스: 02-3413-1728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세요.

#### •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 2017 •

## 공지사항

## 1. 제27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 일시: 2017년 9월 22일(금) 시간미정
- 장소: 동탄2-1공구 중앙공원
- 주관: 체육복지위원회
- ※ 단체 및 기업 행사계획시 사전일정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본회 '기업회원증' 배포안내

- 사업내용: 기업회원사를 대상으로 본회 소속감 증대 및 대외적 업무활용 지원을 위하여 본회 회원증을 제작 배포하고자 함
- 제작 배포기간: 8월중
- 배포방법: 우편발송
- 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회원관리위원회
- ※ 본회는, 회원(사)분들께 우편/메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시어, 빠짐없이 회원(사)분들의 권익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ver.2017 자료제공

- 제공목적: 조경공사 내역서의 체계화와 내역서 작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함
- 제공내용(ver.2017)
- 1)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 2)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코드표
- 3)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4) LH공사 공사원가 산정지침
- 자료다운방법(무료)
- 1) 아래 링크 참조

http://www.ksla.or.kr/committee/bbs/read.asp

- 2)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위원회〉적산위원회 No.10 공지글 참조
- 주관/제공처: 본회 적산위원회

## 4. NCS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사업 착수

- 용역명: NCS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용역(조경)
- 발주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용역기간: 2017.05.08.~10.04 (착수일로부터 150일)
- 책임연구원: 김은성 자문위원(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본 회보 제작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주신 환경과 조경, 라펜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4호.indd 27 2017-07-27 오후 8:30 29

####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 2017

## 연회비 납부현황

구 분	납부내역	
회장단	2017	김선일(LH공사), 신현돈(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 신호우(㈜진화기술공사), 이홍길(조경설계 길디앤 씨), 최원만(㈜신화컨설팅)
자문위원	2016	김재준(방림이엘씨㈜), 맹치영(㈜KG엔지니어링), 백운해(LH공사 토지주택대학교), 피영태(㈜대지개발)
	2017	강철기(경상대학교), 김득일(㈜명산지에프알), 김봉년(㈜신성엔지니어링), 김영환(㈜자성조경), 맹치영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박원제(아세아환경조경), 전부영(㈜가림환경개발), 조정일(㈜도원 도시), 노찬기(㈜건화), 이재석(㈜지피가든), 백운해(LH공사 토지주택대학교), 원운재(㈜경원엔지니어 링), 피영태(㈜대지개발)
상임이사	2016	김득일(㈜명산지에프알), 박유정(삼성물산㈜), 김종호(㈜형호엘엔씨), 박이택(진현이앤씨㈜), 신복순(㈜)에넥스트), 이재연(조경디자인 린㈜)
	2017	김수연(㈜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박유정(삼성물산㈜), 변규열(양천구청), 서미경(㈜해안건축), 서은실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천희(장수산업㈜), 이동석(㈜대지개발), 이선화(지호디자인), 이재욱(㈜천일), 조석근(동백환경개발㈜), 채일(㈜수프로), 홍석진(그린프리즘㈜), 류제중(현대산업개발㈜), 변규열(양천구청 공원녹지과)신동석(디스퀘어㈜), 엽정식(나공사), 윤상준(이화원정원문화연구소), 이종화(청산종합개발㈜), 장현숙(㈜한국조경신문), 조용우(도담조경㈜)
	2018	박해원(㈜맥디자인)
	2016	서미경(㈜해안건축)
에사	2017	양효현(㈜씨엔케이), 이왕섭(㈜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장미란(한국항만기술단), 정길균(㈜ 케이엘에스), 김규범(㈜플레이잼), 김성진(에스엘디자인), 김진성(㈜유성이앤씨), 윤미방(바인플랜), 이 기준(㈜레인보우스케이프), 이상현(두손엔지니어링㈜), 최철호(㈜조경설계 디원)
	2016	윤미방(바인플랜), 이기준(㈜레인보우스케이프)
개인회원	2017	석영한(㈜서브원), 허도행(㈜선진엔지니어링), 황대율(㈜금강주택), 황상준(㈜자이언트여행사), 곽한국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강윤(㈜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이상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상우(㈜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심원양(가야스톤헨지), 이안숙(홍익대학교), 최민정(㈜한길조경), 손결(키그린㈜), 최병희(태광데크㈜)
	2018	김영구(에덴녹화)
	2016	삼성물산㈜(최치훈), ㈜동림이엔씨(김성무), ㈜라모디자인그룹(이승환), 최호영(신성종합조경㈜)
기업회원	2017	㈜가림환경개발(전부영), ㈜대지개발(피영태), ㈜명산지에프알(김득일), 삼성물산㈜(최치훈), ㈜서브원(이규홍), ㈜수프로(채일), ㈜원앤티에스(이조원), ㈜케이엘에스(정길균), 한국조경개발㈜(민윤재), SK임업㈜(이성윤), ㈜다비드조경(이정민), ㈜유니텍홈즈(남상준), ㈜영원산업개발(김진선),㈜도화엔지니어링(오세항/노진명/박승우/곽준상), ㈜라모디자인그룹(이승환)
	2018	㈜영원산업개발(김진선)
	2019	㈜영원산업개발(김진선)

(2017년 3월1일~6월30일 입금기준)

**회비금액** 명예회장/고문 : 연회비 없음, 회 장 : 6,000,000원, 부회장/감사 : 1,000,000원, 상임이사 : 200,000원, 이사/기술위원 : 150,000원, 자문위원 : 100,000원, 정회원(개인회원) : 50,000원, 정회원(기업회원) : 300,000원

납부방법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예금주: (사)한국조경사회 (계좌이체시 회원가입 성명과 입금하시는 성명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모든 업무와 활동을 회비 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사)님께서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7-07-27 오후 8:30:29

####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 2017 •

## 협찬현황

#### 조경사회보 제103호 광고

• 1,000,000원: 미주강화㈜(윤복모), ㈜스페이스톡(정재욱)

#### 조경과 IoT의 만남 세미나

- 1,000,000원: ㈜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미주강화㈜(윤복모)
- 500,000원: ㈜대지개발(이동석), 정광인쇄㈜(이병률), ㈜판코리아(이종진), ㈜유니베라(이병훈)

### 2017 제6회 여성조경인 골프대회

- 1,000,000원: ㈜그린이엔지(황화정)
- 500,000원: ㈜다정하이테크(남궁문학), ㈜원앤티에스(김태수)
- 300,000원: ㈜더준디자인(김상준)
- 물품협찬: 최종필(장수산업㈜), 노영일(㈜예건), 조백일(㈜공간세라믹), 제상우(㈜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박서영(키그린㈜), 정미화(한림로덱스㈜), ㈜디자인파크개발, 김부식(㈜한국조경신문), 이소향(데오스웍스), 유희선(인바이오), 유선희(㈜토문엔지니어링)

#### 조경사회보 제104호 광고

• 1,000,000원: 미주강화(주) (윤복모), (주)예건 (노영일)

2017-07-27 오후 8:30;30

## 조경사 회보 원고(제안) 및 광고(협찬) 모집

#### 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계절마다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조경사 회보가 조경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매체로써

회보에 담고자하는 콘텐츠에 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집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통해 보다 양질의 회보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조경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 관련 제안: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먼저 전화 문의를 주신 후 분량 등의 협의를 거쳐 게재 때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광고(협찬): A4 사이즈의 전면 광고로 1회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

(사)한국조경사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40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T02.565.1712 F02.565.1713 Eksla@chol.com Hwww.ksla.or.kr





## 2016년 제12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토목시설물 레저개발부문 우수상

"영종 씨사이드파크 경관폭포" 국내최초 인공암벽, 전망대 기능을 갖춘 복합경관시설



본사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3번길 36 TEL : 02) 475-1736 FAX : 02) 472-1098 공장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45 TEL : 031) 762-4380 FAX 031) 762-4381

www.ecorock.co.kr

104호.indd 31 2017-07-27 오후 8:30 35

## 기업회원사



**가가조경(주)** 대표이사 : 이승훈 Tel. 031-907-6877 Fax. 031-907-8633



(주)가나안건설 대표이사: 김찬수 cna1667@gmail.com Tel. 02-2040-7722 Fax. 02-584-0866



(주)가림환경개발 대표이사: 전부영 biogro@hanmail.net 02-2653-3338 ax. 02-2065-9437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안세헌 gaone@chol.com Tel 02-501-2555 Fax. 02-501-1742



**(주) 강천** 대표이사 : 여희순 da4882@hanmail.net Tel. 062-574-4881 Fax. 062-574-4883



**거삼조경(주)** 대표이사 : 예종서 geasam@chol.com Tel 02-482-1522 ax. 02-482-1526



(주)건림원 대표이사 : 윤오임 kl8160@chol.co Tel 02-542-8160 ax. 0505-300-8160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이사: 정주현 jajak1472@hanmail.net Tel. 031-707-3313 Fax. 0303-3447-1472



경원조경(주) 대표이사: 정현호 kw4066@hanmail,net Tel. 031-921-4066 Fax. 031-921-4966



경일산업(주) 대표이사: 김승모 admin@kyungil.com Tel. 02-2648-8000 Fax. 02-2648-3763



**계림조경(주)** 대표이사<sub>:</sub>: 김충일 kelimla@chol.com Tel, 02-597-5023 Fax 02-597-5028



계림폴리콘 대표이사: 민병윤 polycon@polycon.co.kr Tel. 02-573-3865 Fax. 02-574-5649



(주)공간세라믹 회장: 조백일 gonggan1@chollian.ne Tel. 02-569-2800 Fax 02-569-0039



광진산업 대표이사 : 김영기 hys0440@hanma Tel. 053-857-9443 Fax. 053-857-9445



(주)그룺21 대표이사: 이용훈 grco21@chollian.net Tel. 02-588-2021 Fax. 02-588-2024



(**주)그룹 · 한** 대표이사 : 박명권 grouphan@grouphan.com Tel. 02-521-1122 Fax. 02-521-9858



(주)그린라인 대표이사 : 황선숙 greenline9@naver.com Tel. 031-889-1541 ax. 031-896-3100



그린조경 대표이사: 박종철 landgreen114@hanmail.ne 031-234-5476 Fax 031-239-7621



(주)금강아트훼스 대표이사: 전종열 artfence@chol.com Tel. 033-745-8373 Fax. 033-745-8378



기단조경기술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윤인규 kidaneng@hanmail.ne Tel. 051-514-0413 Fax. 051-514-0417



(주)기술사사무소아텍플러스 대표이사 : 안상철 Tel. 02-567-0841 Fax. 02-567-0842



기술사사무소 예당 대표이사 : 오두환 Tel. 02-6242-3537 Fax. 02-6242-3540



(주)기술사사무소 I FT letlet@chol.com Tel. 02-424-7182 Fax. 02-424-7175



김종해조경설계(주) 대표이사: 김종해 kjh9067@chol.com Tel. 031-704-8051 Fax 031-709-8053



꽇그린 대표이사 : 김영분 flori@hanmail.net Tel. 031-632-5588 Fax. 031-633-9044

**NARU** 

(주)나루 대표이사: 최상돈 naru06@chol,com Tel. 02-2051-4155 Fax, 02-2051-4157



나무의소망 대표이사 : 김대수 namu@iwoodsign.com Tel\_ 031-592-4978 Fax. 031-592-9984



㈜네이코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조운자 nakos0097@hanmail.ne Tel. 031-627-2800 Fax. 031-629-5146



(주)다비드조경 대표이사: 이정민 dlc503@naver.com Tel. 031-554-4378 Fax. 031-554-4379



(주)다우리디자인그룹 대표이사: 위영준 dawoori@chol.cor Tel. 02-575-4508 Fax. 0303-3440-4507



(주)다정하이테크 대표이사: 송미선 jh5121@hanmail,net Tel, 032-577-4970 Fax, 032-572-4972





(주)대성아이디 대표이사 : 노주호 dsid@dreamwiz.com Tel. 053-765-2223 Fax. 053-761-7908



대아이앤씨(주) 대표이사 : 강완수 daea1211@hanmail.net Tel. 051-853-7700 Fax. 051-852-3399



(주)대지개발 대표이사: 이동석 daeji@lifesoil.co.kr Tel. 02-832-3500 Fax. 02-844-6012



더 자이언트(주) 대표이사 : 임병을 admin@theziant.com Tel. 02-6223-3210 Fax. 02-6223-3219



대표이사 : 한태횐 deosworks@chol.com Tel. 02-862-3444 Fax. 02-862-3449



(주)도광 대표이사 : 전성미 21mirim@naver.com Tel. 032-431-0548 Fax. 032-431-0549



대표이사 : 조정일 dowoncity@chol.com Tel 02-448-8855 Fax. 02-448-1076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 : 오세항, 노진명, 박승우, 곽준상 kim7221@dohwa.co.ki Tel. 02-6323-3921 Fax. 02-568-3774



**동림산업** 대표이사 : 김성무 tovy@korca.com Tel. 02-585-1119 Fax 031-721-3873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경부 대표이사: 전영수 june1127@naver.com Tel 02-6211-7697 Fax 02-6211-7582



(주)동백엘앤씨 대표이사 : 조석근 up9000@hanmail.net Tel. 031-781-5272 ax. 031-781-5274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안계동 dsw96@chol.com Tel. 02-544-5674 Fax 02-544-5697



동아에스텍(주) 대표이사: 한상원 dast@dast.co.kr Tel. 031-777-8321 Fax 031-777-8325



동양워터테크 대표이사:장경천 fountain@chol.com Tel. 02-486-4900 Fax. 031-211-1517



기술사사무소 동인조경마당 대표이사 : 황용득 madang96@chollian.net Tel. 02-2202-0293 Fax. 02-2202-0294



(주)동일기술공사 osch@dongileng.co.kr Tel. 02-2152-2160 Fax. 02-2152-2189



두하에터프라이즈(주) duha3@chol,com Tel. 02-414-1051

ax 02-414-1056



G5(주)디자인가교

(주)디자인가교 대표이사: 김태용 gagyo329@chol.com Tel. 02-564-3680 Fax. 02-568-4372



(주)디자인파크개발 대표이사 : 김요섭 dp566@hanma Tel. 02-2665-6006 Fax 02-706-9773



(주)라모디자인그룹 대표이사 : 이승회 lamo@lamo,co,kr Tel. 031-709-6614 Fax, 031-709-6612



(주)라이브스케이프 대표이사 : 유승종 siyoo@livescape.co.ki Tel 02-579-4995 Fax. 02-2680-2015



(주)라인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윤수희 line2297@chol.com Tel. 02-557-5031 Fax. 02-557-6629



랜트(주) 대표이사 : 오휘영 lafent@lafent.com Tel. 031-932-3122 Fax. 031-902-3129



레인보우스케이프(주) 대표이사: 정운익 ceo@rainbowscape.co Tel, 031-768-1891 Fax, 031-768-1894



(주)맥디자인 대표이사 : 박해워 mac0570@chol.com Tel. 031-997-0454 Fax. 031-997-0456



(주)멜리오유니온랜드 대표이사 : 황선주 seoul@unionland.com Tel. 052-277-4200 Fax. 052-265-7227



(주)명산GFRC 대표이사: 김득일 ms0415@chol.com Tel. 02-445-8992 Fax. 02-445-8993

미주강화주식회사

대표이사 : 유복모

miju33@chol.com Tel. 02-475-1736 Fax. 02-472-1098



명일조경 대표이사 : 이해상 201loveyou@naver, Tel. 02-481-1850 Fax 02-481-1853



(주)목우환경디자인 대표이사: 엄미란 mokwoo92@chol.com Tel. 02-501-0206 Fax. 02-501-0380



**(주)미도랜드** 대표이산 : 이무성 mslee@midoland.com Tel. 02-536-1348 Fax. 031-434-0925



미성조경자재 대표이사 : 정종민 emija@emija.com 1566-5406 Eax, 031-968-2699



비에프현무암(주) 대표이사 : 이민호 alpha0820@hotmail.d Tel. 031-851-3067 Fax 031-853-3067



banglimcorp@hanma Tel, 02-572-4401 Fax, 02-572-4415

방림이엘씨(주)

대표이사: 김재준

대표이사:이병렬

bg21@chol.com Tel.031-761-5313 Fax.031-766-5314



(주)배림조경개발 대표이사 : 김승환 b582@chol.com Tel 02-532-7417 Fax 02-532-8425



백상엘앤씨(주) 대표이사 : 조현재 bsland@unitel.co.ki Tel. 031-782-5900 Fax. 031-782-5902 북한산조경개발 대표이사: 문기수 mks5775@naver.con Tel 031-965-2335 Fax. 031-964-8523



🛡 BnG

104호.indd 32

(주) 비오이엔씨 대표이사 : 최재혁 eohenc@korea.com Tel. 02-425-4954 Fax. 02-425-4943



(주)삼우CM건축사사무 대표이사 : 한종률 iinsherb@hanmail net Tel. 02-3400-3114 Fax. 02-3400-3584



삼흥엘앤씨(주) 대표이사 : 정복현 shla93@chol.com Tel. 032-425-7007 ax. 032-425-7008



**상록건설(주)** 대표이사: 김창환 ss4572@srconst.com Tel. 032-556-2066 Fax. 032-556-2067



상록조경(주) 대표이사 : 김주횐 saroc@hanmail.net Tel. 041-592-7442 Fax. 041-592-7446

- 새한그린

**새한그린** 대표이사 : 박광일 saehan2003@empal.com Tel. 02-2138-1000 Fax. 02-2138-1005



(주)샘라이팅 대표이사 : 이익흔 in@saem.co.kr Tel. 02-3487-2222 Fax. 02-3487-2332



서경건설개발(주) 대표이사 : 오성균 land02@hanmail,net Tel. 02-501-9140 Fax. 02-501-9259



(주)서브원 대표이사: 이규홍 kong1007@serveone,co.ki Tel. 031-8026-6674 Fax, 031-8026-6611



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주) 대표이사 : 신현돈 shinhveondon@karea.cor Tel. 02-576-5171 Fax. 02-3463-7009

ECO TO

(주)서ㅎ에코탄 대표이사 : 서곤성 seohoblock@hanmail.net Tel 02-547-4136~7 02-547-4134



(주)서지에지니어링 종합거추사사무소 huheun@sunjin.co.kr Tel. 02-2670-5659 Fax, 02-2670-5658



성우하이테크 바어지 Tel. 02-473-6000 Fax. 02-479-4433



(주)성호엔지니어링 Tel. 02-3400-6800 Fax. 02-3480-6810



세림조경 대표이사 : 하영티,조정윤 selimland@harmail.ne Tel. 02-6419-0071 Fax. 02-512-5161



세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 심왕섭 selimla@chol.com Tel. 02-577-2231 Fax, 02-577-6897



세양조경(주) 대표이사 : 박상원 seyangl@chol.com Tel. 031-275-3561~3 Fax. 031-275-3564

수하미조경주식회사



(주)세인환경디자인 대표이사: 박건형 seined@naver.con Tel. 02-877-8895 Fax. 02-877-8812



주식회사 세주 대표이사: 김갑선 saeju0969@naver.c Tel. 031-8021-0670 Fax. 031-8021-0672



(주)송림원 대표이사 : 임상규 treeyim@hanmail.ne Tel. 02-586-0025 Fax. 02-581-5225



(주)수프로 대표이사: 채일 ceo@yahoo.co.kr Tel. 02-578-4532 Fax 02-6008-2453







(주)스페이스톡 대표이사 : 정재욱 master@spacetalk.co.k Tel, 02-525-3274 Fax, 02-525-3276



승진조경(주) 대표이사: 곽원제 splus2010@naver.com Tel. 02-543-6601 Fax. 02-543-6698



**신림산업(주)** 대표이사 : 방승준 sinrim23@hanmail.net Tel. 031-389-8890 ~ Fax. 031-389-8892



신성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최호영 sstl2000@hanmail.net Tel. 02-2052-7194 Fax. 02-2052-7011



(주)신우이엔지 대표이사: 김순하 sinwlighting@naver.com Tel. 033-661-3099 Fax. 033-662-3099



(주)신화컨설팅 대표이사 : 최원만 TeL. 02-545-5903 Fax. 02-549-5905



(주)씨토포스 대표이사: 최신현 ctopos@chol.com Tel. 02-553-0808 Fax. 02-553-8440



대표이사 : 권오병 assum@assum.co.kr Tel. 02-502-0724 Fax. 02-502-0725

HDC 아이서비스

아이서비스(주) 대표이사: 김종수 minipark@i-service.co.k Tel. 02-2008-8581 Fax. 02-2008-8880



(주)아쿠아텍코리아 대표이사: 장진수 aquatech@unitel.co.kr Tel. 031-471-4756 Fax. 031-471-4770



**안스디자인** 대표이사 : 안영애 ad003@chol.com Tel. 02-3448-5677 Fax. 02-3448-5676



(주)에넥스트 대표이사 : 신복순 enext2002@hanmail.ne Tel. 1544-9611 Fax. 051-920-2744



(주)에버그린필드 (구)에더그런글드 대표이사 : 이호열 hyso440@hanmail.r Tel. 053-744-0440 Fax. 053-793-0444



**에스빠스조경** 대표이사 : 정미숙 espace7@empal.com Tel 02-482-1758 Fax. 02-483-1758



(주)에코스타일 대표이사: 맹시호 ecostyle1@naver.co.kr Tel. 041-885-9001 Fax, 041-885-9003



에코아트조경(주) 대표이사: 정인영 dongwoo1088@naver.co Tel. 02-2267-1088 Fax. 02-2279-1600



에코앤바이오(주) 대표이사 : 장성왼 edla@econbio.com Tel 031-595-9260 Fax. 031-595-9263



(주)에코톤 대표이사 : 송병언 kangsh@ecotoneu.com Tel. 070–8808–5499 Fax. 031–713–0629



대표이사: 성세경 fc4u@hanmail.nct Tel. 02-3141-1174 Fax, 02-3141-1175 열매화원

대표이사: 이춘희 yullmae@hanmail.net

Tel. 02-502-0508 Fax 02-503-0629

(주)에프씨코리아랜드



OUNGLIM

(주)엔쓰컴퍼니 대표이사 : 허수경 Tel. 02-583-1713 Fax 02-523-3039



(주)엔엠에스 대표이사 : 신선숙 sss4875@naver, Tel. 043-882-3933 Fax. 0505-115-3933



(주)엘그린 대표이사: 이성호 lgreen@naver.com Tel. 02-572-8643 Fax. 02-572-1149



(주)엘티아이조경산업 대표이사 : 김형수 lotteww@naver.com Tel, 031-675-6018 Fax 031-675-6019



(주)오엘컨설팅 대표이사 : 변문기 evodia@olec.com Tel 051-816-6773 Fax 051-816-8245



Tel. 02-960-1981 Fax. 02-967-9725 (주)온유조경 대표이사: 김정식 onuland@naver.com Tel. 02-578-4410 Fax. 02-578-4471

영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김진선 yw6781@hanmail.net Tel. 02-588-6781 Fax 02-586-7525 (주)온주조경





(주)예건 대표이사 : 노영일 yekun@chol.com Tel. 031-943-6114 Fax. 031-943-6698

용인로뎀파크교회 수목장

Tel. 031-321-0044 Fax. 031-321-0202

대표이사 : 최성곤 rodem299@naver.cor



(주)예원&포아이가든 대표이사: 최봉길 yesone9@naver.com el. 02-574-8337 ax. 02-574-8338

우영조경건설(주) 대표이사: 주영수 woo-94@hanmail.net



우인이앤씨 대표이사 : 류근환 wooincon@naver.com Tel. 032-462-3300 Fax. 0303-3130-3306



원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삼진 cjin0413@hanmail.net Tel. 02-418-2428 Fax. 070-4015-3114



대표이사: 고연표 svp@wonsuk.co.kr Tel. 031-708-8644 Fax. 031-713-3924

육임조경(주)

대표이사 : 육경준

iyookim@hanmir.cor Tel. 02-502-6226 Fax. 02-503-6595

Fax 041-544-0864

대표이사 : 서동진



(주)원앤티에스 대표이사: 이조원 wonnts@hanmail.net Tel. 02-338-2882 Fax, 02-338-7890

(주)은강조경산업

ekland2002@hanmail,n Tel. 02-412-7146 Fax. 02-412-7147

대표이사 : 서해석



(주)유니텍홈즈 대표이사: 남상돈 uh7123@hanmail.net Tel. 031-674-7123 Fax. 031-674-7124

Tel. 031-266-3801 Fax. 031-575-6840



**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은성 yurimla@chol.com Tel 02-579-4815 Fax, 02-579-4817



(주)유일종합조경 대표이사: 유오봉 uiland@naver.com Tel. 02-591-3597 Fax. 02-591-6304



이랜드체육산업(주) 대표이사 : 조선형 eland21c@naver.com Tel. 032-564-7681 Fax. 032-564-7684



- E · K -

GREENPOL

la@nwks.co.kr Tel. 031-389-0286 Fax. 031-389-0298



대표이사 : 홍재설 hjs20c@hanmail.net Tel. 02-577-7260 Fax. 02-579-7888 이영혜화예연구소

(주)은평조경

E∧GON <del></del> 이건환경

(주)이건환경 대표이사: 박승준 gland@eagon.com Tel. 031-999-3830 Fax. 031-987-9150



(주)이노블록 



대표이사: 이원찬

대표이사 : 이영혜 flodeco@hanmai.net Tel. 031-637-5498 Fax. 031-637-5498

2017-07-27 오후 8:30:37 104호.indd 33

## 기업회원사

E-WOOD W

**이우드코리아** 대표이사 : 이근식 Ikunsig@hanmail.net Tel 02-446-0347 Fax, 02-446-0361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진승범 wooend@ naver.com (주)인도어가든 대표이사 : 한은화 lei0326@naver.co Tel. 02-543-1326 Fax. 031-421-1326



**(주)인테코** 대표이사 : 김재훈 rubbermat55@naver.cor Tel. 031-989-6142 Fax. 031-989-6144



**일영산업** 대표이사 : 박왕진 tree7410@naver.com Tel, 02-2213-0924 Fax, 02-2213-5445



임광조경(주) 대표이사: 임성광 limkwang0817@hanmail.net Tel. 02-573-3042 Fax. 02-529-7864



(**주)자연과환경** 대표이사 : 정대열 hawky@nate.com Tel. 02-557-9951 Fax. 02-557-9830



자연제주

ZAIN

**주식회사 자인** 대표이사 : 박주현 zaingroup@naver.com Tel 02-6289-5100~1



(주)잔초 대표이사 : 저요즈 jc1200@hanmail.net Tel. 031-796-4841 Fax 031-796-4842



장수산업(주) 대표이사 : 김현옥 js0080@chol.com Tel. 031-753-0080 Fax. 031-721-6786



잔우조경(주) 대표이사 : 박태옥 jue85@hanmail.net Tel. 02-2252-0815 Fax 02-2252-0816



**(주)장원조경** 대표이사 : 신경준 shin2460@hanmail.net Tel 02-578-4590 ax. 02-578-4591



쟁이화경디자인 대표이사 : 김민중 jengi10@nate.com Tel. 043-222-3719 Fax 043-222-3720





정진종합조경(주) 대표이사 : 김창회 jeongjinco@hanmail.net Tel. 044-868-7695 ax, 044-868-7696



(주)정한조경 대표이사 : 정영한 chung9388@hanmail.ne Tel. 02-424-8855 Fax. 02-415-2588





조경디자인린(주) 대표이사: 이재연 lhyn@lhyn.com Tel. 02-516-4222 Fax 02-516-4297



(주)조경사 엔앤씨 대표이사 : 김성찬 kscdj@hanmail,net Tel. 031-889-6710 Fax 031-889-6106



(주)조경설계 비욘드 대표이사 : 노환기 beyondl@cha Tel. 02-2202-2050 Fax. 02-2202-0597



(주)조경설계 서안 대표이사 : 정영선 satla@chol.com Tel. 02-579-7008 Fax. 02-576-7009



(주)조인조경 (구)조건조명 대표이사 : 김영일 joinland@joinlands.co.ki Tel. 031-544-4414 Fax 031-544-4415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상진 gola1999@chol.com Tel. 02-501-0935 Fax. 02-501-0959



진랜드엔지니어링 대표이사:최종오 jinland2@daum.net Tel.02-2628-5680 Fax.02-2628-5688



진성조경건설 대표이사: 김태웅 escapedavid@empal.cor Tel. 031-706-3931 Fax. 031-706-3928



진속조경주신히사 대표이사 : 김옥희 sungyeun@naver.com Tel. 031-262-9881 Fax. 031-262-9882



창대JNC 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 홍갑진 cdjnc@chol.com Tel. 02-413-5604 Fax 02-413-5669



(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병채 chaeum@chol.com Tel. 02-423-7611 Fax 02-423-7613



(주)천마이앤씨 대표이사 : 제상호 cmenc@chol.com Tel. 02-576-1041 Fax. 02-576-1817



천지조경(주) 대표이사: 정국선 chunjijk@chol.com Tel. 02-388-3707 Fax. 02-388-3710



대표이사 : 장인경 chlqudwomir@naver.cr Tel. 043-883-2321 Fax. 043-883-2322

철박물관



(주)청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장대수 Tel. 051–508–6323 Fax. 051–508–3518



대표이사: 이재홍





청원조경(주) 대표이사: 하석일 nofada119@hanmail.ne Tel. 031-776-3111~2 Fax. 031-776-3113



(주)충림종합기술 대표이사: 심창진 land3670@chol.com Tel. 02-406-2987 Fax. 02-406-3670



(주)케이엘에스 대표이사: 정길균 Tel. 031-434-1038 Fax. 031-434-1039



cwdc@chungwoo.co.ki Tel. 02-3489-2000 Fax. 02-522-6349



Tel, 033-765-7596 Fax, 033-765-7597 코오롱글로텍(주) 대표이사 : 최석순

대표이사: 이운식 sungju97@korea.com



콤판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세근



키그린(주) 대표이사: 박서영



**(주)태흥F&G** 대표이사 : 이종수



대표이사 : 권우중 gasolsong@hanmail.ne Tel. 031-797-6820 Fax. 031-797-6821



alotechir@kolon.co Tel. 02-3677-5895 Fax. 02-3677-5903



Tel, 02-3473-9617 Fax, 02-3473-9675



Tel. 031-548-1199 Fax, 070-8673-8572



thing@naver.com Tel. 02-2611-0810 Fax. 02-2611-0833



토담환경디자인 대표이사 : 김연희 soap2k@naver.con Tel, 031-8001-0017



(주)판코리아 대표이사 : 이종진 jinjaro@daum,net Tel, 042-824-6734

ax 042-825-6735



(주)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수웅 rick@pec.ne.kr Tel. 031-420-7804 Fax 031-420-7810



<u>포스코</u>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138186@poscoenc.com Tel. 032-748-2777 Fax. 032-748-4043



푸른나무조경(주) poorun1@hanmail,ne

Tel. 032-885-9853

Fax 032-885-9854

한국농어촌공사



Fax, 031-281-0105 (주)푸른바이오 대표이사 : 박현준 purum 1@hanmail.net

Tel 031-291-3375

Fax. 031-291-3374 (주)한국도시녹화



풍산조경(주) 대표이사: 한순희 poongsan1@hanmail.net Tel. 032-566-4862 Fax. 032-566-4863



대표이사 : 최태식 fm87448@hanmail.net Tel 055-342-9461 Fax 055-342-9465 한국씨씨알(주)

대표이사: 변동원 ccr8311@naver.com Tel. 031-781-8311

Fax 031-708-8411

필드마스터(주)



**Urbansys** 

한국가로수보호(주) 대표이사: 최병섭 accounting@urbansys.co. Tel. 02-387-2311 Fax 02-353-8837

한국조경개발(주)

대표이사 : 민윤재 hankukla@chol.com

Tel, 032-321-9006 Fax, 032-321-0092



대표이사: 이상무 songsh0425@ekr.or.kr Tel. 061-338-5114

(주)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대표이사: 전효중 sejunpark@empas.com Tel. 02-541-4654

Fax 02-2226-4654



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김철민 sp21kcm@hanmail,net Tel.02-414-1117 Fax.02-6007-163

대표이사: 이강록 firewind@kecc,co,kr Tel, 02-2049-5614 Fax, 02-2049-5097

(주)한국종합기술



LÖDEX FÖDEX

Tel 02-812-2377 Fax 02-816-2377

대표이사: 맹흥호 lodex@hanmail.net

Tel. 02-2203-1566 Fax. 02-3431-5371

한국론타이(주)

한림로덱스(주)

한일개발(주)

대표이사 : 유우옄



한림에코텍(주) 대표이사 : 한성식 ccw815@chol.com Tel. 02-3445-8921 Fax 031-735-8080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경윤 hanlim@hanlimla.co.k Tel. 02-564-3311 Fax. 02-564-3314 해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한승호 hgreen@chol.com Tel. 02-3411-0898 Fax. 02-3411-0845 현대산업개발(주)

한설그린(주)



(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김영욱 vw9382@dr Tel. 031-596-6501 Fax. 031-596-6500

형진조경(주)



hanilde@chol.com Tel. 031-704-1700 Fax. 031-709-4908 (주)형호엘엔씨 대표이사: 김종호 howon5256@naver.com Tel. 02-2057-5204 Fax. 02-571-5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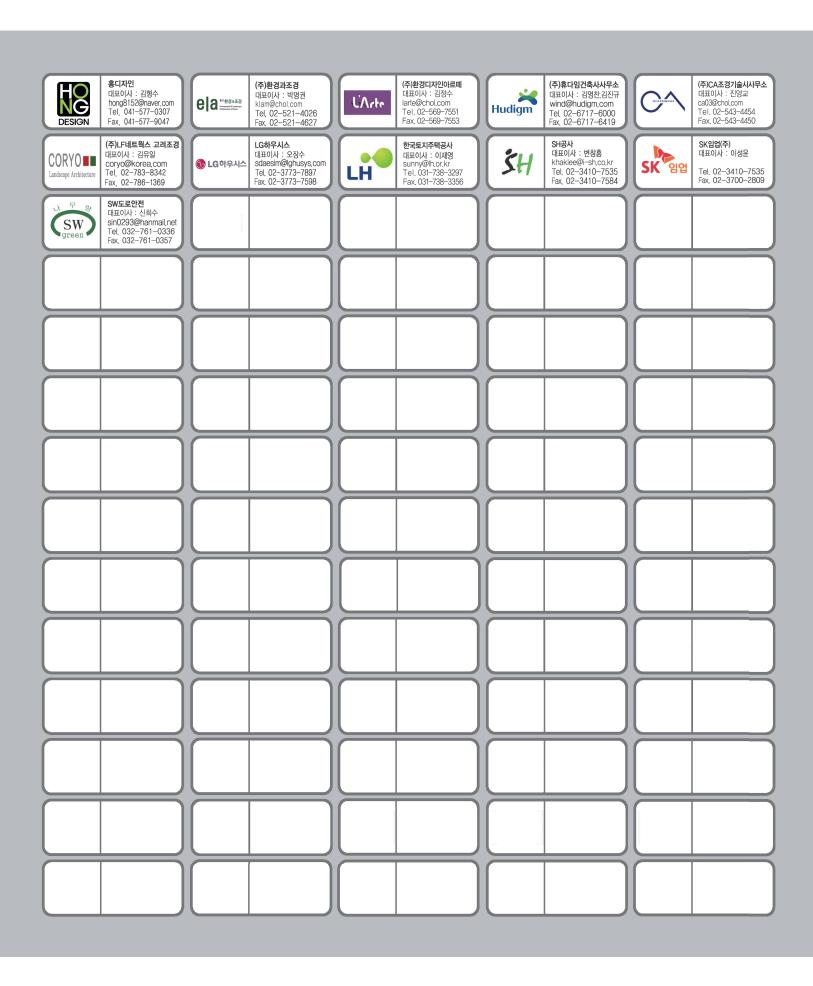
대표이사: 한정훈 rabbit2311@hanmail.net Tel. 02-2027-6030-Fax. 02-2027-6035



대표이사 : 김재식, 정몽규 el 02-2008-9558 Fax.02-2008-9004



대표이사: 강이호 linland@chol.com Tel.02-592-1545 Fax 02-592-1662



104호.indd 35 2017-07-27 오후 8:30;39





스퀘어등벤치 美 IDEA 디자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수상!









카림라시드展

예건 카림라시드벤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7,6,30 - 10,7





## (주)예건은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어워드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주)예건의 스퀘어등벤치(YB-254)가 6월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2017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 디자인 어워드 Street Light and Furniture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도피오벤치(YB-287/YB-288)의 2017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선정에 이은 쾌거로

예건은 디자인강소기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www.yekun.com

YEKUN, 주식회사 예건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T.031-943-6114F.031-943-6698E.yekun@yekun.com디자인연구소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T.02-324-1140F.02-324-3270E.yekundesign@chol.com

104호.indd 36 2017-07-27 오후 8:30:39